

# 광주시 8년만에 '고시 트리오' 시대 부활



이병훈 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장이 25일 민선 7기 광주시 초대 문화경제 부시장에 임명되면서 시장과 양대 부시장이 모두 고시 출신으로 채워지는 '고시 트리오' 시대가 열렸다. 왼쪽부터 이용섭 시장, 이병훈 문화경제 부시장, 정중제 행정 부시장. 이 시장은 행시 14회, 이 부시장은 행시 24회, 정 부시장은 행시 32회다.

광주시가 8년 만에 '고시(考試) 트리오' 시대를 다시 맞았다. 이병훈 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장이 25일 민선 7기 광주시 초대 문화경제 부시장에 임명되면서 시장과 양대 부시장이 모두 고시 출신으로 채워지게 됐다. 이용섭 시장은 행시 14회, 이 부시장은 행시 24회, 정중제 행정 부시장은 행시 32회다. 고시 출신 30인방이 서열 1~3위에 오른 건 지난 2010년 이후 8년만이고 민선시대 들어서는 3번째다. 민선 6기 때인 2010년에는 강운태 시장(행시 11회), 송기근 행정 부시장(행시 23회), 강계두 경제 부시장(행시 22회)이 시정을 이끌었다. 앞서 1995년 민선 1기 때는 송인중 시

장(행시 13회, 사법고시 2회), 송재구 행정 부시장(행시 5회), 안재호 정 부시장(행시)이 삼각편대를 이뤘다. 1986년 광주가 직할시로 승격되면서 전남에서 분리독립된 후 시장은 13대에 걸쳐 11명이 역임했거나 재임중이다. 강운태 시장이 시차를 두고 두 차례(6, 11대) 시장직을 수행했고, 박광태 시장은 유일하게 재선했다. 7명이 행시 출신이고 출신 대학은 서울대가 4명으로 가장 많고 조선대 3명, 전남대 1명, 고려대 1명, 성균관대 1명, 숭실대 1명 순이다. 부시장은 모두 31명으로, 1~6대(1986년 11월~1995년 6월)까지는 1 시장 1 부시장 체제였고, 민선시대가 열린 1995년 7월부터는 1 시장 2 부

## 이용섭·이병훈·정중제 '행시 3인방' 역대급 스펙 광역행정 리빌딩 기대 vs 엘리트·관료주의 경계

장 체제로 전환했다.

행정 부시장과 정 부시장이 양대 축을 형성한다. 2007년 4월, 김윤석 부시장이 처음으로 '경제 부시장'에 오르면서 행정과 경제로 분할 재편됐고, 이번에 처음으로 문화에 경제를 얹힌 '문화경제' 부시장이 처음으로 탄생했다.

고시파는 중용과 흠대를 반복해 왔다. 고시 출신 시장 시절에는 통상 중용되고, 비고시파 시장 때는 반대 상황이 되풀이됐다. 비고시 출신인 고재유 시장 시절 부시장 5명 중 4명이 비고시파인 반면 고시파인 강운태 시장 시절엔 5명 중 4명이 고시 출신이다. 의사 출신 비행시파인 윤장현 시장 때는 독특하게도 7명의 부시장 중 박병규 경제 부시장을 제외한 무려 6명이 고시 출신으로 채워졌다.

이용섭·이병훈·정중제 트리오의 프로파일만 놓고 보면 '역대급 트리오'로 평가받고 있다.

이 시장은 전남대 최초로 재학 중 행시에 합격한 뒤 DJ정부 관세청 부시장은 모두 31명으로, 1~6대(1986년 11월~1995년 6월)까지는 1 시장 1 부시장 체제였고, 민선시대가 열린 1995년 7월부터는 1 시장 2 부

위원장을 역임했다. 차관급 3번, 장관급 9번, 국회의원 2번이다.

이 부시장은 고려대 법학과, 전남대 행정학 박사, 행시에 합격한 뒤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을 거쳐 30대 후반에 광양군수를 지냈다. 이어 전남대 기획관리실장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본부장,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장을 역임했다. 지난해 대선 때는 문재인 후보 광주총괄선대본부장, 6월 지방선거 때는 이용섭 후보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었다.

완도 출신으로 인성고와 서울대 정치학과를 나와 행시로 공직에 입문한 정 부시장은 광주시 여론계장과 기획계장, 교통기획과장, 자치행정과장, 문화관광과장을 거쳐 행정안전부 3대(안정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재난관리실장)를 역임했다.

시장의 한 간부는 "역대급 지도부"라며 "행정의 밀도와 강도, 완성도가 어느 때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여 솔직히 긴장도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광역행정 리빌딩'에 대한 기대감 못잖게 엘리트 주이나 관료 중심 행정에 따른 시민사회, 노동계와의 불협화음과 미찰을 우려하는 시각도 없진 않다.

서은홍 기자

## 동구, 제4회 아시아푸드 페스티벌 개최

광주 동구는 오는 28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인근 구시청 일원에서 아시아음식문화지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제4회 아시아푸드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4월부터 10월까지 매월 넷째 주 토요일에 개최되는 아시아푸드 페스티벌은 다양한 문화공연과 함께 매월 주제를 선정해 그 나라의 대표 음식을 참여자와 함께 만들어보고 맛볼 수 있는 음식문화축제로 관광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날 저녁 7시부터 시작되는 행사는 필리핀을 주제로 ▲김나영 호원대 외식조리학과 교수를 초청해 참여자와 함께 '판싯비혼(필리핀 잡채)을 만들어보는 '줍마들의 식탁' ▲필리핀 팔빙수 '할로할로'와 '바나나 토론'을 맛볼 수 있는 '로드레스토랑' 등이 풍성하게 펼쳐진다.

## 서구, 무료법률지원사업 호응

광주 서구는 24일 취약계층 주민들을 위한 무료법률지원 사업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서구는 지난 2014년부터 법무부 법률홈터더 파견사업에 공모 신청해 변호사 1명을 배치 받아 '법률 홈터더'를 운영하고 있다.

'법률 홈터더'는 법률 자문이 부족하고 경제적으로 힘든 취약계층 주민들에게 무료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구청에 상주하며 기초수급자, 다문화 가족 범죄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상속포기 신청, 압류금지 채권법위 변경신청, 임대차계약 해지내용증명 답변 등 40여 건에 이르는 법률관련 상담을 지원한다.

## 남구, 환경미화원 근무시간 조정

광주 남구는 폭염에 맞서 길거리 환경 관리를 하고 있는 환경미화원들의 건강 관리를 위해 근무시간을 조정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28일부터 환경미화원들의 휴일 근무시간은 기존 오전 8시부터 오전 7시로 당겨진다.

또 휴일과 법정 공휴일 등에 근무하는 환경미화원에게 1인 1일씩 탈수 방지용 정제 포도당을 지원하고, 햇빛과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는 팔토시와 목도시를 지급하기로 했다.

평일에도 35도 이상의 폭염 경보가 2일 이상 지속될 경우 야외작업 등으로 인한 건강 악화를 예방하기 위해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일체의 작업을 모두 중단하고 휴식을 취하도록 했다.

## 북구, 비엔날레·중외공원 문화예술벨트 활성화

문인 북구청장이 중외공원 일원의 문화예술벨트 현장을 방문해 문화·예술단체 및 공원 이용 주민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

25일 북구에 따르면 "문인 북구청장이 중외공원 일대 문화예술벨트 현장을 찾아 문화예술단체 관계자 및 주민들을 만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고 비엔날레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을 함께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은 올해 열리는 광주비엔날레와 중외공원 내 문화시설을 연계해 중외공원 문화예술벨트를 시민과 관광객이 즐겨 찾는 매력적인 문화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이뤄졌다.

북구는 오는 9월 열리는 제12회 광주비엔날레를 대비해 주민참여 활성화 계획을 수립, 3대 분야 20개 사업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 평동 주민자치위, 생활역사유물전시관 체험코너

25일 광주 광산구 평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전동선)가 '평동생활역사유물전시관 체험코너'를 조성, 문을 열었다.

이 코너는 지난해 9월 동 주민회에서 제안·결된 것을 이번에 완성한 것. 주민자치위는 2015년 6월 개관한 평동생활역사유물전시관에 주민 의견을 더해 유물 동영상 자료를 구비하는 등 교육활용공간으로 꾸미고 방문객 맞이에 나섰다.

옛 생활유물 관람과 함께 새 전시관에서는 유물관련 정보를 담은 리플릿을 활용 저금통도 만들고, 농기구를 쉽게 그려보는 탁본체험, 동영상 자료를 활용한 교육 활동 등을 할 수 있다.

임형택 기자

## 광주농협, 상반기 광역단위 종합업적평가 1위

김일수 본부장 "농업인 소득증대 향상에 앞장"



농협 광주지역본부는 농협중앙회의 상반기 종합경영분석회의에서 광역시 단위 종합업적평가 전국 1위를 달성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은홍 기자

농협 광주지역본부는 농협중앙회의 상반기 종합경영분석회의에서 광역시 단위 종합업적평가 전국 1위를 달성했다고 25일 밝혔다.

광주지역본부는 농업인의 다양한 실익지원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향상과 지역농협의 지속적인 성장·농축산물 판매증대, 경제사업 활성화를 통해 상반기 전국 최우수 평가를 획득했다. 김일수 본부장은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으로 부터 1위 달성패를 수상했다.

김 본부장은 "농가소득 5000만 원 달성과 농업인 실익지원을 위한 광주농협 전임직원 단합된 노력의 결과"라며 "하반기에도 조직의 모든 역량을 다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 향상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전남도교육청 융합형 직속기관 재배치 촉구"

전남도의회 신민호 의원

전남도의회 신민호 의원은 전남교육청의 직속기관 업무보고에서 "도교육청의 직속기관은 융합형 직속기관으로 재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민호 의원은 "전남의 학생 수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심각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은 관료적이고 비대해져 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전남은 타 지역에 비해 관할구역이 넓어 기능중심의 직속기관 배치로 인해 그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직속기관은 동부지역에 편중 배치되어 있다"면서 "직속기관에 대한 획기적인 배치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 대안으로 "권역별 교육지원센터 설치를 제안한 가운데 한 기관에 시설 집약을 통해 다기능 융합형 직속기관으로 재배치하는 방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김승호 전남동부취재본부장

"호남신문과 함께 할 주제기자 모집합니다"

## 고흥 · 장성 · 장흥

湖南新聞이 지역공감 미래창조 정론직필의 나무를 키우겠습니다.

전화 : 062-224-5800

e-mail : ihonam@naver.com  
F a x : 062-222-5548  
홈페이지 : www.ihonam.com

湖南新聞

고객 감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고을석 세무회계사무소

- 법인 설립
- 양도소득증여
- 기업 진단
- 기 장 대 리
- 건설면허신청
- 외 부 감 사

광주시 서구 매월동 948 산업용재유통센터 30동 217호(풍암지구)  
TEL : 062-603-1060 FAX : 062-603-1062  
H.P : 011-641-6152

- ▶ 비계 구조물 해체공사
- ▶ 석면 해체공사
- ▶ 지정·건설 폐기물 처리
- ▶ 석면조사

측량 >> 토목 설계 >> 도시 계획  
토목공사 >> 창업상담 >> 관계민원업무

광주 서구 쌍촌동 994-1 영산강빌딩 별관 203호



(주)고려환경개발 Tel : 062)361-0404  
(주)고려기술공사 Tel : 062)362-8251



## 월드노무법인 World Labour Corporation

- ▶ 노동법 기업컨설팅
- ▶ 산재업무대리
- ▶ 급여체계 정비사
- ▶ 징계(해고)자문
- ▶ 4대보험 무료대행
- ▶ 노동부 지원금

노동부 옴부즈만위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광주·목포 노동청 전문위원

대표/공인노무사 박정태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104 밀알신탁 5층

Tel : 062)512-0336 H.P : 010-3624-0338